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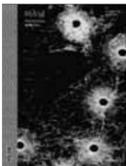
말, 바퀴, 언어
데이비드 W·앤서니 지음

고고학 통해 과거 사람들 조명

하워드 대학의 인류학과 교수 데이비드 W·앤서니는 고고학을 이렇게 말한다. “고고학은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간성과 중요성을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인간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가 이번에 펴낸 ‘말, 바퀴, 언어’는 고고학을 통해 과거 사람들의 일상의 짜임새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유라시아 초원의 청동기 기마인은 어떻게 근대 세계를 형성했나’라는 부제가 보여주듯 책은 황량한 초원의 선사시대와 이후의 역사시대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문자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당대의 사람들의 문화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자는 이를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단서를 얻는데 ‘언어는 수많은 화석, 즉 놀랄 만큼 오래된 화자들이 남긴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고 본다.

〈에코리브르·4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퍼스널
잭리치 지음

프랑스 배경 액션 추리물

파리에서 프랑스 대통령 저격 사건이 발생한다. 발사 거리는 무려 1300미터. 고도로 훈련받은 스나이퍼가 아니라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사정거리였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갔지만 수사 과정에서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빗맞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위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 때문인지 감명하게 다가온다. 영미권 추리소설계의 권위 있는 상 앤서니 상과 배리 상을 동시에 수상한 바 있는 잭리치가 신작 ‘퍼스널’을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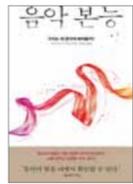
소설은 1인칭 화자 시점과 치밀한 문장으로 액션스릴러의 진수를 보여준다. 소설에서 대통령 저격 사건은 연습에 불과하고 범인의 진짜 목표는 얼마 후 개최될 G8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프랑스는 범인을 찾기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출신의 저격수 네 명이 용의선상에 오른다.

〈오픈하우스·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간은 왜 음악에 감동하고 흥분하나

음악 본능

크리스토프 드리셔 지음



“연주는 손이 저절로 하고 있었고, 나는 내가 연주하는 음악을 즐기면서 듣고 있었다.”

제17회 쇼팽콩쿠르 우승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그렇게 말했다. 그는 음악 삼매경에 빠져든 채 음악 자체를 즐겼다. 물 흐르듯 부드러운 선율이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음악이란 그런 것이다. 감정을 건드리는 강력한 자극과도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래 실력은 유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남들 앞에 나서서 노래 부르는 것을 적잖이 꺼려한다.

연말 송년회가 다가오면 ‘노래 교문’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혼자 자서는 곧잘 흥얼거리는 사람들도 대중 앞에 서면 얼어버린다. 집착컨대 음악은 내밀한 욕구와 관련돼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말문이 트이기 전

부터 노래를 따라 부른다. 우리 뇌에는 식욕, 성욕과 함께 음악 본능이 내재돼 있다. 음악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풍부한 음악 경험은 뇌를 유연하게 하고 재구성한다.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의 편집자이자 과학 저널리스트인 크리스토프 드리셔가 사람은 왜 음악에 빠지는지를 탐색했다. 그가 펴낸 ‘음악본능’은 우리가 왜 음악에 감동하고 흥분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 저자는 뇌과학, 진화생물학 등 다양한 관점으로 인간이 가진 음악 본능을 고찰하면서 자신의 체험과 결부시킨다.

인간의 뇌 깊숙한 곳(변연계)에는 보상 중추가 있다고 한다. 섹스를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하는 기관이다. 음악에 빠질 때도 뇌의 이 부위에 버튼이 켜진다. 또한 음악을 자주 듣다 보면 음정, 음계, 화음, 조성 등 복잡한 규칙이 어느 정도 내면화된다. 누구든 음악 중독자가 될 개연성이 있다.

우리의 청각은 이미 들은 음악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익숙한 것을 편해한다. 음악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이유다.

4분의 2박자와 4분의 4박자는 인간의 뇌가 특별히 좋아하는 박자다. 두 발로 직접 보행한다는 특성상 2배수에 바탕을 둔 박자에 친근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박자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뇌가 규칙적인 박자로 맞추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부터 음악을 하게 되었을까. 진화심리학자 제프리 밀러는 남자가 여자들에게 성적 매력을 과시하기 위해 음악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 어떤 학자들은 음악을 발명한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주장도 한다. 폼에서 떨어지면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엄마가 노래를 불러줬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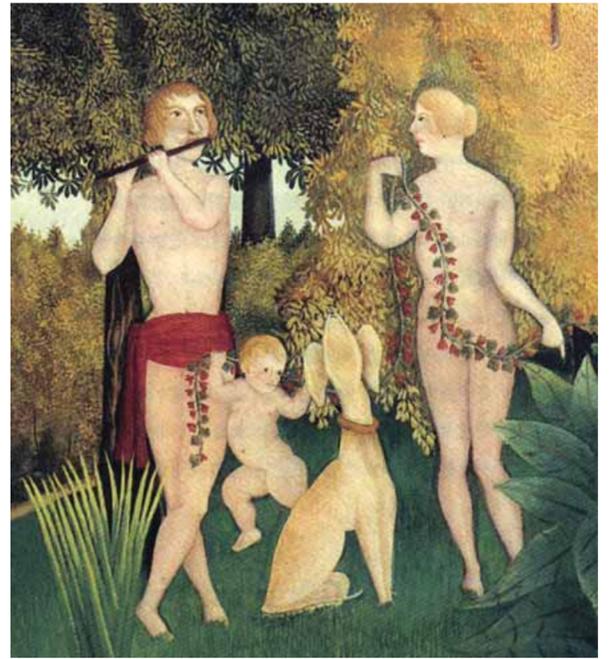
물론 음악은 태아의 뇌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긴다. 아기들은 임신 기간 들었던 특정한 곡을 생후 2년이 지나도 선호한다.

개인의 음악 취향이 형성되는 시기는 15세에서 25세까지다. 이 시기에는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문제의식을 갖는다. 친구, 연예 전로 등 중요한 국면을 지나면서 감정의 격동을 겪는다. 특정 음악에 강렬한 인상을 받는다.

치매환자에게 음악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환자가 가장 나중엔 잃어가는 청소년기에 부른 노래다. 그뿐 아니라, 음악을 하면 뇌의 여러 부위를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활발하게 사용하는 뇌 구역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나의 노래는 나의 삶”이라는 말이 있다. 굳이 ‘18번’을 말하지 않아도 음악은 가장 내밀한 곳까지 도달한다. 누구에게나 내밀한 삶의 역사가 있듯이.

“모든 것을 떠나서, 높은 봉우리는 넓은 산자락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



우리 뇌에는 식욕, 성욕과 함께 음악 본능이 내재돼 있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다. (해나무 제공)

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에 불안과 스트레스에 짓눌린 직업 음악가가 있고, 다른 편에 음악적 열등감에 짓눌린 일반인이 있다면, 이 양극단 사이에 널찍한 공간이 있다. 이리저리 따질

것 없이 음악을 그냥 사랑하라. 그것이 나와 당신과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해나무·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현대미술에 매료된 예술 애호가 11명 이야기



컬렉터

박은주 지음

20세기 현대미술계의 산증인이자 컬렉터로 미술사에 전설이 된 페기 구겐하임, 젊은 작가인 데이미언 허스트 등을 후원해 일약 현대미술 스타로 만들었던 찰스 사치.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컬렉션을 바탕으로 미술관을 세운 슈퍼컬렉터라는 점이다. 이들의 취향과 안목은 현대미술을 정립

하는 중요한 지표로 자리잡았으며, 이들에게 발탁된 예술가의 이름을 빼놓고는 현대미술사의 흐름을 설명하기 힘들다.

이들뿐 아니라 예술사는 매세나, 페르란의 등장과 함께 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컬렉터가 존재한다. 르네상스 시대 든든한 후원자였던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 프랑스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선물한 프랑수아 1세, 17~18세기 유럽의 왕실이 대표적인 컬렉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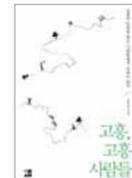
월간 ‘아트 프라이스’ 칼럼 기고자이자 컬렉터들의 작품 선별에 깊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박은주 씨가 펴낸 ‘컬렉터’는 11명의 예술 애호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컬렉터는 예술품을 선택하고, 선택한 작

품들에서 하나의 맥락을 이끌어내며 자신의 컬렉션을 구축해가는 이들이다.

국내 미술시장에서 미술품은 ‘투기’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예술 애호가들은 비자금용 마련하거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작품을 수집하지 않는다. 저자는 직접 컬렉터의 집을 방문해 그들의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예술품이 우리에게 주는 순수한 기쁨을 전달한다.

책에는 3세대 컬렉션을 이어오는 가족을 비롯해 문화예술공로훈장을 수상한 프랑스인 컬렉터, 마티스 박물관의 관장, 대형 아트페어의 전시기획자 등 다양한 국적과 직업의 컬렉터들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아트북스·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고흥 역사와 그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의 기록



고흥, 고흥사람들

박번순 지음

고흥의 역사와 그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을 담은 책 ‘고흥, 고흥 사람들’이 나왔다.

역사 속의 고흥, 현재의 고흥을 몸으로 직접 느끼기 위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도보여행으로 고흥을 일주한 박번순이 고흥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고흥의 정체성을 만든 사람들, 고

흥과 인연을 맺었던 다양한 사람들, 고흥의 벼슬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고흥으로 유배 왔던 사람들, 그리고 가난을 탈출해 고흥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사연과 함께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고흥에서 태어난 향우다. 책은 수십년만에 고흥을 찾은 저자가 홀로 걸으면서 보고 들은 고흥 사람들의 이야기와 저자가 가르친 학생들과 함께 걸었던 고흥 일주 이야기가 수채화 그려져 담겨 있다.

〈이새·1만8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남가

대산프리모가발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라미랑 맛집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